

탈북이주민의 문장읽기 억양 특성

최미영* · 김화수**

요약 본 연구는 탈북이주민의 문장읽기를 통하여 그들의 억양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보고자 어절의 억양과 문장의 끝 억양을 중심으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말을 비교하였으며, 차후 연구 혹은 탈북이주민 억양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4,50대 탈북이주민 성인 2명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50대 성인 2명이다. 탈북이주민 성인은 북한 함경북도 출신으로 함경북도 방언을 사용하였으며, 남한 이주 후에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마치고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경상남도 거주 성인은 경상남도 출신으로 부산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여 전형적인 경상남도 방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억양을 비교하기 위해 문장읽기를 통하여 발화를 수집하였다. 읽기자료는 어절의 억양을 위한 13개의 문장과 문장 끝 억양을 위한 문장 8개로 총 21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음성은 소음이 통제된 방에서 각 대상자가 편안히 앉은 상태로 Praat(version 5.1.23)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44,100Hz, mono). 모든 대상자들은 21개의 문장을 순차적으로 2회 반복하여 발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 샘플 하나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어절의 억양에서 탈북이주민 성인은 전체적으로 어절단위로 오르내림이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비슷한 굴곡조로 나타났으나 그 주파수 변화 폭에 있어서 탈북이주민 성인이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장 끝 억양에서 평서문의 경우 탈북이주민 성인은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내림조로 나타났으나, 내림조의 경우 그 정도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굴곡조로 나타나는 문장은 그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의문문의 경우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탈북이주민 성인 모두 내림조로 그 끝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끝이 올라가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경남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경북도 방언에서도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탈북이주민, 억양, 문장읽기, 주파수

* 김해아동발달센터, 언어치료학, verdimy@hanmail.net

** 대구대, 언어치료학, whasoolang@hanmail.net(교신저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 속한 탈북이주민은 2012년 10월까지 잠정적으로 남성 7,504명, 여성 16,805명으로 총 24,309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2012). 특히 2008년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이 계속되어 북한 내에 있는 가족의 구출이 증가하면서 탈북이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수경, 2009).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60여년 동안 다른 사회체제를 반영하듯 언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탈북이주민들은 남한사회에 통합되었을 때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차이가 탈북이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이주민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질화된 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느끼며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거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김중태, 2003).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어를 전부 알아듣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과 자격지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강창구, 2010).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데 언어가 달라서 어려울 수 있으며, 취업 및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무시의 대상이 된다는 심리적 불안감도 경험할 수 있다. 탈북이주민들의 고용에 있어서는 취업 후에도 언어소통 장애로 인해 고용을 부담스러워 하며 문화적 측면에서 북한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시와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성일 외, 2008).

비록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질화되어 온 어휘와 억양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양수경·권순희, 2007). 이와 관련하여 이현복(1999)은 남·북 음성언어는 모음과 자음의 음

가 차이 및 모음의 장단, 말의 리듬과 억양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실제 북한 말에서 자주 사용되는 억양의 실현 형태는 웅변조의 투쟁적, 선동적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이현복, 1999). 이러한 경우 자칫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용완(2006)은 탈북이주민들의 심층면접 내용에서 “억양이 달라서 남한 사람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라는 면접내용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탈북이주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미숙(2005)에 따르면 학생들이 갖는 고민 중 일부가 ‘말씨가 다른 것(20.6%)’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경일(2000)과 문금현 외(2006)에서는 남한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남한식으로 발음과 억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탈북이주민들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남한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지를 조사한 결과(김석향, 2003)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자가 25.7%, 간혹 어렵다는 응답자가 45.7%로 결국 71.4%가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중 발음과 억양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보고한 경우가 전체의 25.9%로 외래어 사용 40%에 뒤이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김석향, 200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이주민들의 억양적 특징은 남한사회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탈북이주민들도 남한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실현하지는 못한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때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방해하게 된다. 의사 전달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억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된 억양으로 실현된 발화는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한국어의 정확한 발화와 청취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 억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발화의 질적 향상 외에도 억양 교육은 학습자들이 말하기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탈북이주민들을 위한 억양 교육을 위해서 우선 그들 발화에 나타난 억양적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이주민 성인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말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억양은 음절단위에 얹히는 높이의 변화로서 주파수로 나타나지만, 개인과 성별에 따라 다른 주파수대역을 가지므로, 절대적인 높이로써 나타낼 수 없고 상대적인 높이로써 그 차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낱말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의 어미가 굴곡을 할 때 일어나는 어절 단위의 높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장의 끝 억양은 문장의 통사적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절의 억양과 문장의 끝 억양을 중심으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차후 연구 혹은 탈북이주민 억양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첫째, 탈북이주민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 간 어절의 억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탈북이주민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 간 문장 끝 억양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명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 성인 2명과 동일한 지역, 연령대의 성인 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탈북이주민 대상자는 북한 함경북도 출신으로 함경북도 방언을 사용하며, 남한으로 이주 후에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마친 후 부산지역에서 거주한 4,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탈북이주민 성인 대상자별 특징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한국 정착시기	현거주지	현거주지 거주기간
최○○	여	55.7.21	함경북도	2004. 9.	부산	8년
허○○	여	68.11.1	함경북도	2008. 3.	부산	4년

경상남도 거주 대상자는 탈북이주민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4,50대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경상남도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산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여 전형적인 경남방언을 사용하는 성인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경상남도 거주 성인 대상자별 특징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현거주지	현거주지 거주기간
이○○	여	55.2.14	경상남도	부산	31년
여○○	남	54.3.15	경상남도	부산	31년

2) 연구도구

(1) 읽기자료

이 연구에서는 탈북이주민이 가지는 억양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말을 비교하였다. 억양은 음절단위에 얽혀 나타나는 높이의 변화로 음절단위를 비롯해 낱말, 어절, 문장 등의 단위에 나타나 의미의 변별 및 감정적 차이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어절단위의 억양과 문장 끝의 억양은 방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절의 억양과 문장 끝 억양을 중심으로 그 일반적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에게 문장읽기를 통하여 발화를 수집하였다. 읽기자료는 어절의 억양을 위한 13개의 문장과 문장 끝 억양을 위한 문장 8개로 총 21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어절의 억양을 위한 읽기자료는 실제 발화에서 낱말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의 어미가 굴곡을 할 때 일어나는 어절 단위의 높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병운(1997)을 참고로 하여 수정하였으며, 실험문장은 총 13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어절과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 이루는 어절단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읽기자료는 표 3과 같다.

또한 문장 끝 억양은 문장의 통사적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읽기자료는 김수정 외(1998)을 참고로 하여 수정한 것이다. 실험문장은 억양 대비가 분명히 나타나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선택하였으며, 평서문과 의문문 각각 4개씩 총 8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의문문의 경우 각 지역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문장은 억양 곡선을 잘 나타내기 위해 유성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였으며,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에는 억양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어절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읽기자료는 표 4와 같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탈북이주민 성인의 억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 각각 2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주어진 문장을 읽도록 하여 녹음한 후 집단별로 가장 자연스러운 음성 샘플을 분석하였다.

2012년 10월 18, 19일 이틀 동안 녹음을 하였으며, 대상자와 검사자, 보조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발화를 수집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록한 후에 실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검사 문장을 읽어 보도록 하여 익숙하게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이어 21개의 문장을 제시하는 순서대로 읽도록 하였다. 각 문장은 순서에 맞게 균등 조절하여 제시하였으며, 문장 끝 억양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검사 문장을 읽기 전에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상황(의문문)과 대답하는 상황(평서문)을 이해시킨 후 평상

표 3. 문장읽기자료(어절의 억양)

조사의 억양	2음절 주격조사	안개가 낀다. 바람이 분다. 하늘이 맑다. 구름이 떠 간다.
	2음절 그 밖의 조사	나리가 부산에 간다. 나리가 서울에 간다. 나리가 점심을 먹었다. 영희가 대구에 갔다.
	3음절어와 결합한 조사	사마귀가 뜯었다. 까마귀가 울었다. 무지개가 생겼다. 여드레가 되었다.
어미의 억양	어말어미	새가 운다. 바람이 분다. 안개가 낀다. 하늘이 맑다.
	선어말어미	까마귀가 울었다. 사마귀가 뜯었다. 나리가 점심을 먹었다. 여드레가 되었다.

표 4. 문장읽기자료(문장 끝 억양)

평서문	누나는 나를 몰라요. 마늘이 너무 매워요. 아이가 엄마와 놀아요. 눈이 많이 내려요.
의문문	누나는 나를 모름니까(모르나)? 마늘이 너무 맵습니까(맵나)? 아이가 엄마와 놀니까(노나)? 눈이 많이 옵니까(내리나)?

시 대로 발화(읽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음성은 Praat(version 5.1.23)를 이용하여 직접 녹음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21×29.7cm의 카드에 제시된 5개의 예문을 미리 보여주고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전 한 단락으로 된 이야기 글을 먼저 읽도록 한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어절의 억양을 위한 13개의 문장을 읽도록 하여 녹음하였다. 제시된 문장을 모두 읽은 후 같은 문장을 다시 읽도록 하여 녹음을 하였다. 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문장의 끝 억양을 위한 8개의 문장을 읽도록 하여 녹음하였으며, 이 또한 반복하여 다시 읽도록 하여 녹음하였다. 대상자가 문장을 읽기 전에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상황(의문문)과 대답하는 상황(평서문)을 이해시킨 후 평상 시 대로 발화(읽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21개의 문장을 순차적으로 2회 반복하여 발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 샘플 하나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음성은 소음이 통제된 방에서 각 대상자가 편안히 앉은 상태로 Praat (version 5.1.23)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44,100Hz, mono).

(2) 분석방법

모든 대상자들에게 21개의 문장을 2회 반복하여 42개의 문장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발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 샘플 하나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각 대상자의 발화를 Praat(version 5.1.23)을 이용하여 각각의 주파수 폭과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개인과 성별에 따라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가지므로, 절대적인 높이로써 나타낼 수 없어 상대적인 높이로써 그 차이 살펴보기 위해 이 변화의 폭을 상대적인 높이로 변환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상승과 하강의 주파수 차이가 $\pm 10\text{Hz}$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 상승 또는 하강으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어절 단위로 가장 높은 주파수부터 고조(H), 중조(M), 저조(L)로 나타내었다.

3. 결과

이 연구는 탈북이주민이 가지는 억양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말을 비교하였다. 억양은 음절단위에 얹혀 나타나는 높이의 변화로 음절단위를 비롯해 낱말, 어절, 문장 등의 단위에 나타나 의미의 변별 및 감정적 차이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어절단위의 억양과 문장 끝의 억양은 방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

1)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 간 어절의 억양

발화에서 낱말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의 어미가 굴곡을 할 때 일어나는 어절 단위의 높이 변화를 통하여 어절의 억양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어절과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 이루는 어절단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1) 조사의 억양

① 2음절 주격조사

그림 1에 나타난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탈북이주민 성인의 억양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억양에서 조사의 억양은 모두 앞 음절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남방언에서 첫 어절은 일반적으로 끝이 내림조이며, 주격조사의 억양이 앞 음절보다 낮다(이병운, 1997)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탈북이주민 성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첫 어절에서는 경남방언과 동일한 억양의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억양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 음절과 조사 사이의 주파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 앞 음절과 조사 간의 주파수 차이는 18~26Hz 사이로 나타난 반면 탈북이주민 성인의 경우에는 이보다 큰 30~56Hz 사이로 나타났다. 각 음절별 주파수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탈북이주민의 억양이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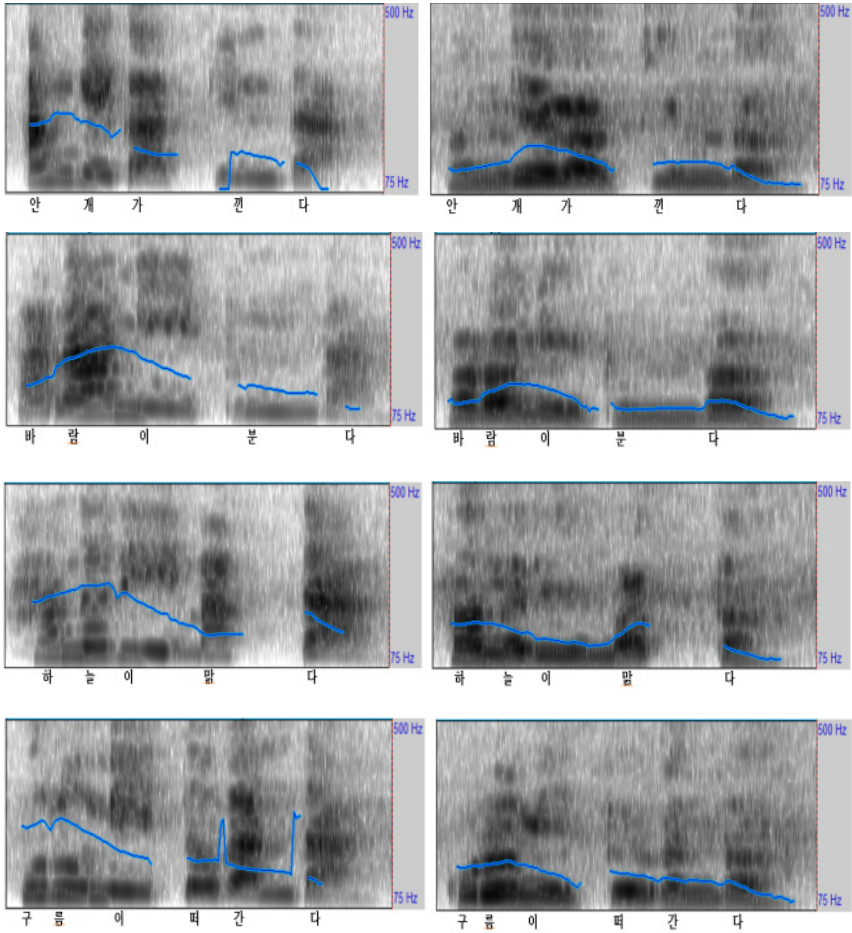


그림 1.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2음절 낱말과 결합된 주격조사의 억양 곡선

표 5. 2음절어와 결합한 주격 조사의 억양

어절	탈북이주민 성인	경상남도 거주 성인
안개가	HML	LHM
바람이	LHM	LHM
하늘이	MHL	HML
구름이	HML	HHL

굴곡조로 느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2음절 낱말과 주격 조사가 결합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억양을 고조(H), 중조(M), 저조(L)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② 2음절 그 밖의 조사

그림 2에 나타난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억양은 일관되게 앞 음절에 비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내림조인 반면에 탈북이주민 성인의 억양은 앞 음절과 조사의 높이가 같거나 앞 음절과 조사 간의 주파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앞 음절과 조사 간에 주파수 차이는 18~22Hz 사이로 그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탈북이주민 성인의 경우에는 0~37Hz 사이로 조사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는데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음절 별 주파수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음절 낱말과 주격조사를 제외한 그 밖의 조사가 결합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성인의 억양을 고조(H), 중조(M), 저조(L)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③ 3음절과 결합한 조사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듯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에 3음절과 결합한 조사는 2음절어와 마찬가지로 앞 음절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남방언에서 첫 어절은 일반적으로 끝이 내림조이며, 주격조사의 억양이 앞 음절보다 낮다(이병운, 1997)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탈북이주민 성인의 억양에서도 3음절어와 결합한 조사의 억양이 2음절어의 경우와 같이 앞 음절보다 낮게 나타났다. 3음절과 결합된 어절의 경우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억양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서 가장 높음 주파수를 가지는 반면 탈북이주민 성인은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음절의 위치가 단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음절에서와 같이 앞 음절과 조사 사이의 주파수 간격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 15~24Hz 사이로 그 폭이 좁은 반면에 탈북이주민은 28~51Hz 사이로 그 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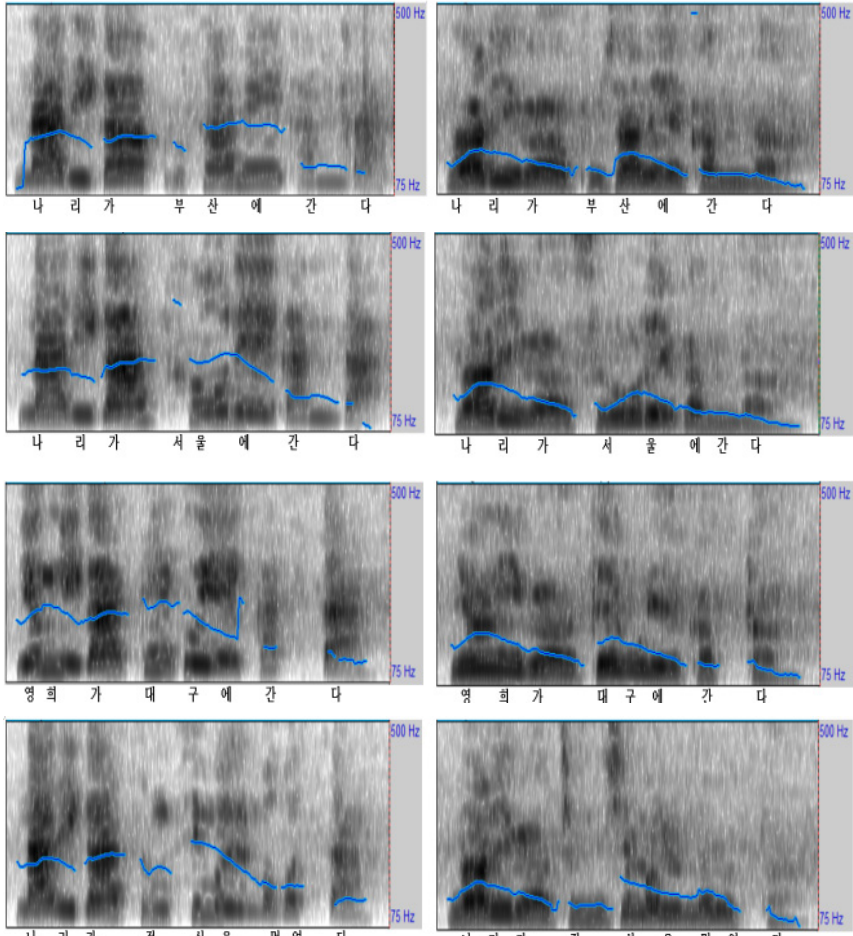


그림 2.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2음절 낱말과 결합된 그 밖의 조사의 억양 곡선

표 6. 2음절어와 결합한 그 밖의 조사의 억양

어절	탈북이주민 성인	경상남도 거주 성인
부산에	LHH	LHM
서울에	HML	LHM
점심을	LHL	LHM
대구에	HML	H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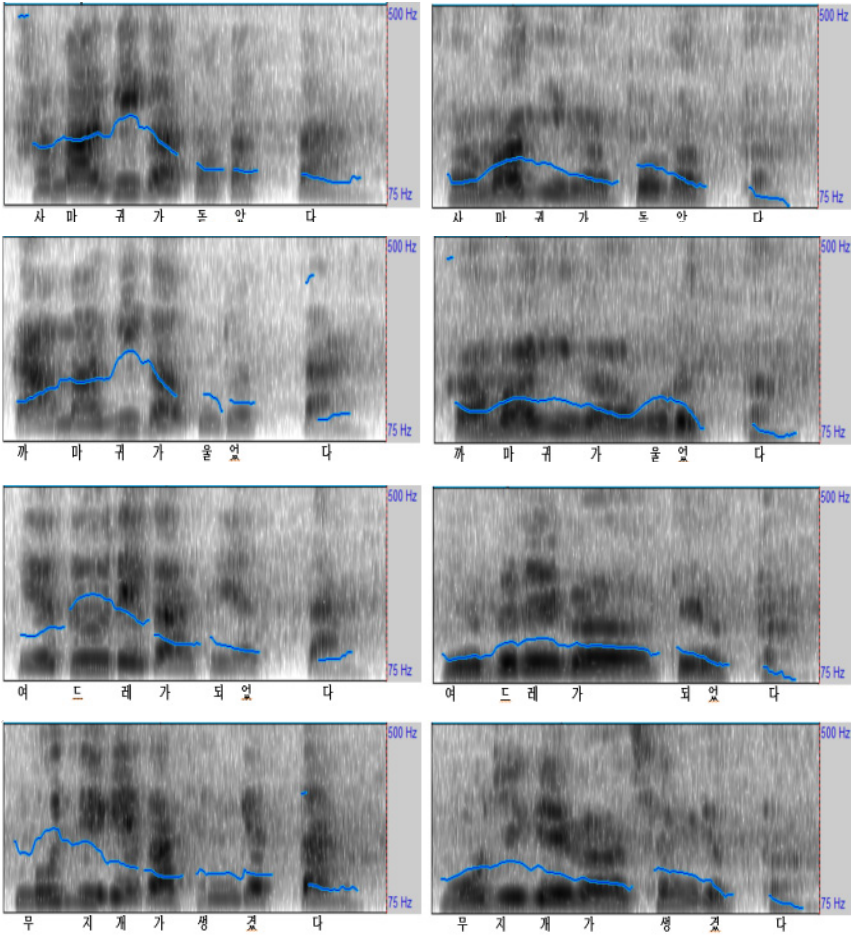


그림 3.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3음절 낱말과 결합된 조사의 억양 곡선

표 7. 3음절어와 결합한 조사의 억양

어절	탈북이주민 성인	경상남도 거주 성인
사마귀가	LMHM	LHML
까마귀가	LMHM	LHHL
무지개가	HHML	MHML
여드레가	LHML	LHHL

있다. 각 음절별 주파수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두 역량 모두 굴곡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3음절 낱말과 조사가 결합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역량을 고조(H), 중조(M), 저조(L)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2) 어미의 역량

① 어말어미

탈북이주민 성인의 경우 서술어의 어말어미 역량이 전체 역량에 비하여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데 반해,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 전체 역량과 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조금 낮게 시작한다. 그림 4에 나타난 역량 곡선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거주 성인은 앞 음절에 비해 어말어미가 같은 높이에서 나타나거나 약간 낮은 것에 반해서 탈북이주민 성인은 ‘맑다’를 제외한 세 개의 문장에서 앞 음절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맑다’의 경우 다른 문장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앞 음절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에도 다른 문장에 비해 ‘맑다’는 그 하강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맑다’가 다른 문장과 달리 어말어미가 폐쇄음과 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어말어미 역량을 고조(H), 중조(M), 저조(L)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②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에는 높임에 관한 것과 시제에 관한 것이 올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과거 선어말어미의 역량만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5에 나타난 역량 곡선을 보면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 내림조로 서술어가 계단식으로 낮아지면서 첫 음절에 비해 선어말어미가 낮게 나타난 반면 탈북이주민 성인은 첫 음절과 선어말어미의 높이가 같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이주민 성인의 경우 ‘었’의 역량이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역량에 비해 더욱 분명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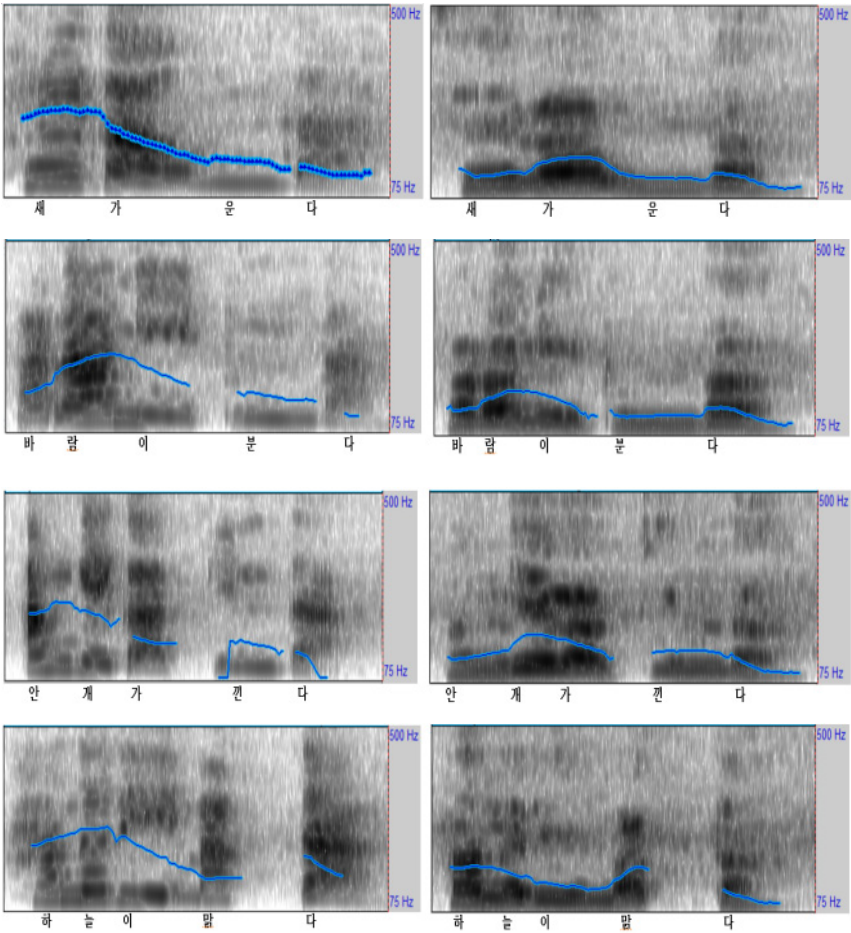


그림 4.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어말어미의 억양 곡선

표 8. 어말어미의 억양

어절	탈북이주민 성인	경상남도 거주 성인
운다	ML	LL
분다	ML	LL
낀다	ML	HL
말다	LM	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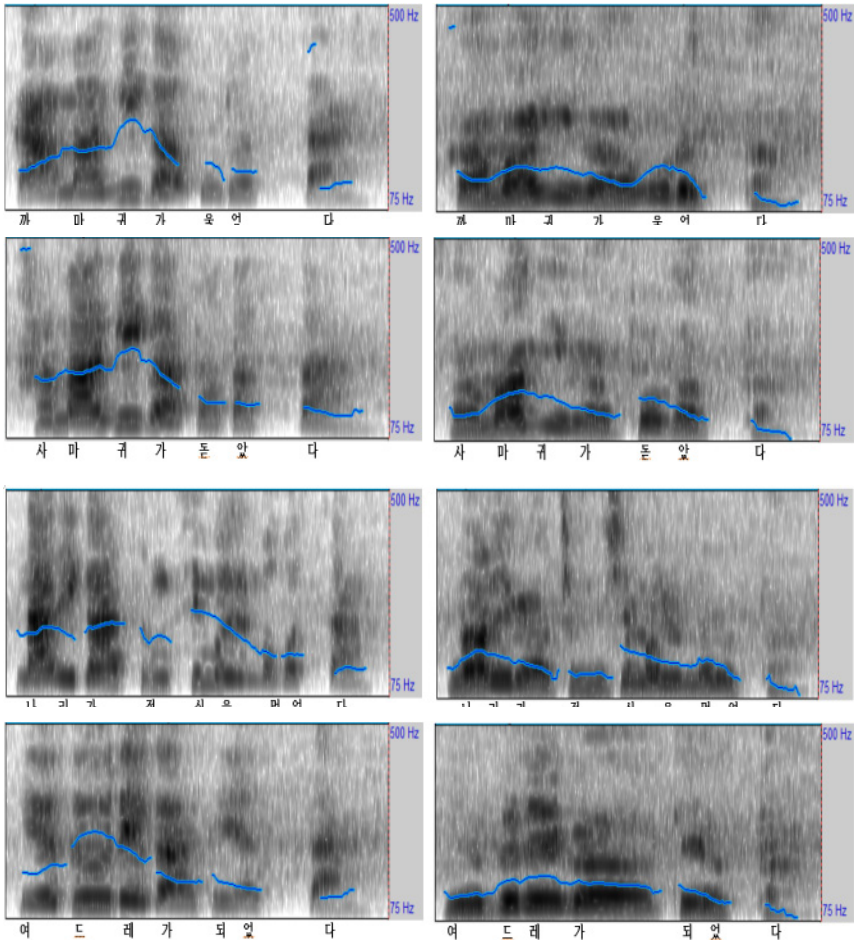


그림 5.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선어말어미의 억양 곡선

표 9. 선어말어미의 억양

어절	탈북이주민 성인	경상남도 거주 성인
울었다	HHL	HML
돌았다	MML	HML
먹었다	MML	HML
되었다	MML	HML

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선어말어미 억양을 고조(H), 중조(M), 저조(L)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2)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 간 문장 끝 억양

문장의 끝 억양은 문장의 통사적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실험문장은 억양 대비가 분명히 나타나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선택하였다. 평서문과 의문문 각각 4개씩 총 8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문문의 경우 각 지역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문장은 억양 곡선을 잘 나타내기 위해 유성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하였으며,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에는 억양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어절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였다.

(1) 평서문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평서문 억양을 비교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평서문의 경우 경상남도 거주 성인은 대체로 내림조로 나타났으나, 탈북이주민 성인은 내림조의 경우 그 정도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굴곡조로 나타나는 문장은 그 주파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각 음절 별 주파수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 의문문

그림 7에 나타난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의문문의 경우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탈북이주민 성인 모두 내림조로 그 끝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끝이 올라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남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경북도 방언에서도 의문문의 끝 억양이 내려가는 내림조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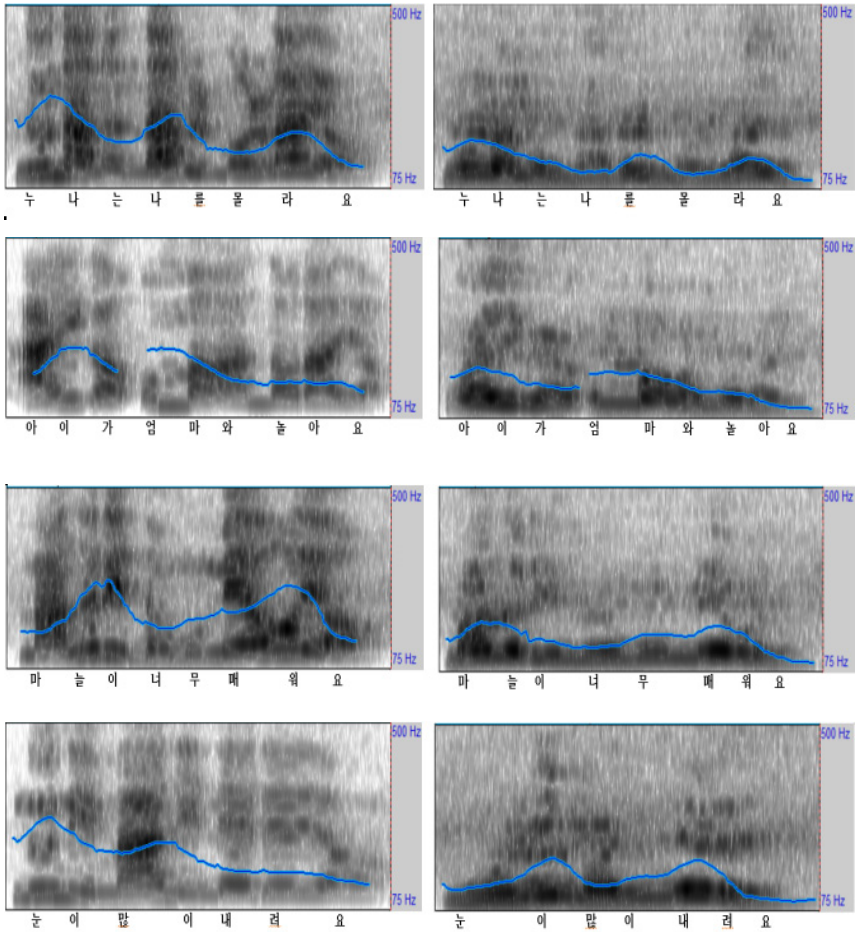


그림 6.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평서문 억양 곡선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탈북이주민이 가지는 억양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50대의 탈북이주민 성인의 말을 비교하였다. 억양은 음절단위에 얽혀 나타나는 높이의 변화로 음절단위를 비롯해 낱말, 어절, 문장 등의 단위에 나타나 의미의 변별 및 감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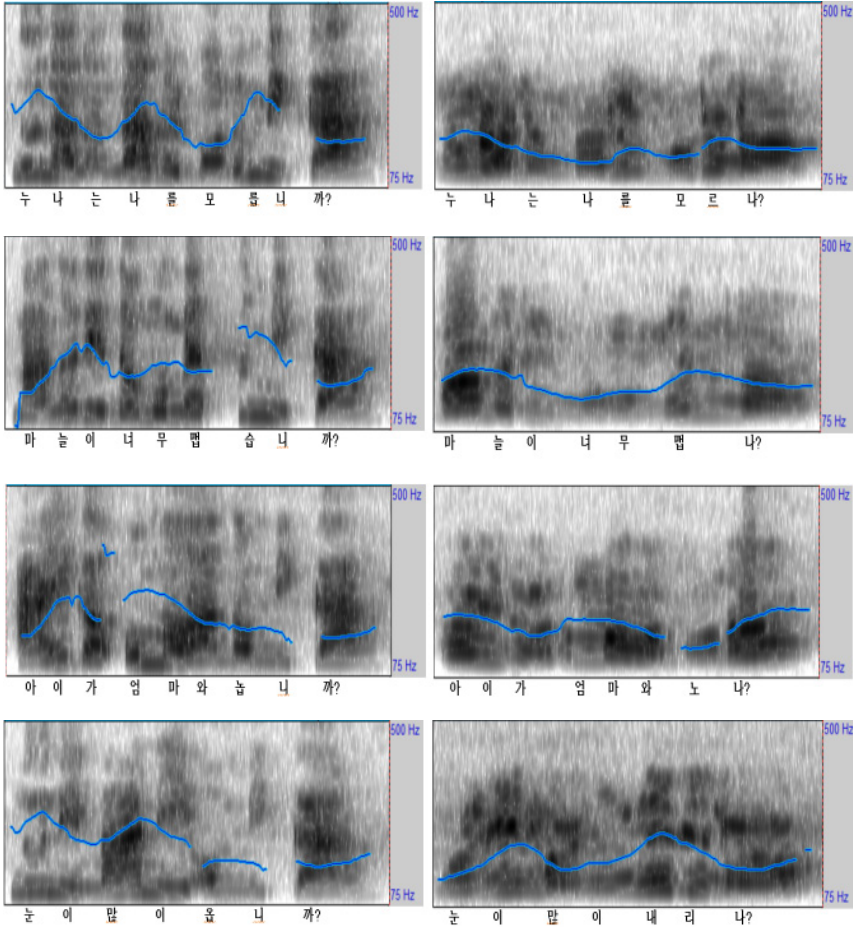


그림 7. 탈북이주민 성인(왼쪽)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오른쪽)의 의문문 억양 곡선

차이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어절단위의 억양과 문장 끝의 억양은 방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어절의 억양과 문장 끝 억양을 중심으로 그 일반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절의 억양에서 탈북이주민 성인은 전체적으로 어절단위로 오르내림이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비슷한 굴곡조이다.

조사의 억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의 첫 어절의 경우는 2음절과 3음

절 동일하게 조사의 억양이 앞 음절보다 낮았다. 이는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그 주파수 변화 폭에 있어서 탈북이주민 성인이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격 조사를 제외한 그 밖의 조사가 2음절 단어와 결합한 경우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억양이 일관되게 앞 음절에 비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내림조인 반면에 탈북이주민 성인의 억양은 앞 음절과 조사의 높이가 같거나 앞 음절에 비해 조사의 떨어지는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앞 음절과 조사 간에 주파수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탈북이주민 성인의 경우에는 조사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 주파수 변화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미의 억양에서는 경상남도 거주 성인에 비해 탈북이주민 성인은 서술어의 억양이 전체 억양에 비하여 낮은 곳에서 시작하며, 경상남도 거주 성인은 어말어미가 앞 음절과 같은 높이에서 나타나거나 약간 낮은 것에 반해서 탈북이주민 성인은 앞 음절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선어말어미에서는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경우 내림조로 서술어가 계단식으로 낮아지면서 첫 음절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에 탈북이주민 성인은 첫 음절과 선어말어미의 높이가 같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이주민 성인의 경우 ‘었’의 억양이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억양에 비해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장 끝 억양에서 평서문의 경우 탈북이주민 성인은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내림조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가 완만하였으며 굴곡조로 나타나는 문장은 주파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의문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끝이 올라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남방언과 같이 함경북도 방언 역시 의문문의 끝 억양이 내림조인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끝 억양의 경우 탈북이주민의 억양과 경상남도 성인의 억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들은 문장 끝 억양에 의한 의미 변별의 어려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탈북이주민이 가지는 억양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차후 연구 혹은 억양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인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수가 각각 2명으로 각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수가 적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로 대상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방언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표준어 집단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발화 수집 방법에 있어서 문장읽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산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발화 수집을 통해 발화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발화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억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발화속도, 운율구 경계짓기, 음도 범위, 강도 범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변화만을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포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서문, 의문문 문장만을 사용하여 문장 억양을 분석하였는데 명령문이나 감탄문 등 다양한 문장을 실험문장으로 이용하여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13.04.25 접수, 2013.06.03 수정, 2013.06.28 게재확정

참고문헌

강창구, 2010,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통일문제연구, 22(1), 261-290.

김미숙, 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교육계발원.

김석향, 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김수정·신지영·김기호, 1998, 이완성 구음마비 환자의 운율적 특성 연구, 음성과학, 4(2), 141-156.
- 김중태, 2003, 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문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88-106.
- 문금현·이홍식·김경령, 2006, 탈북이주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양수경, 2009, 탈북이주민 언어 적응 문제와 교육방안,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논문집, 68-84.
- 양수경·권순희, 2007, 탈북이주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459-483.
- 이병운, 1997,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 연구, 7, 79-103.
- 이현복, 1999, 남북한 음성언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29(30), 64-91.
- 정경일, 2000,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사회언어학, 10(1), 253-274.
-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최성일·공선영·박지혜·정미화, 2008, 경기도 탈북이주민 정착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통일부, 2012, <http://www.unikorea.go.kr/>

〈부록 1〉 각 음절 별 주파수(탈북이주민 성인)

문장	주파수(Hz)									
안개가 낀다	안	개	가	낀	다					
	241	220	164	156	115					
바람이 분다	바	람	이	분	다					
	176	234	204	155	115					
하늘이 맑다	하	늘	이	맑	다					
	242	265	216	154	178					
구름이 떠 간다	구	름	이	떠	간	다				
	264	253	198	183	163	136				
나라가 부산에 간다	나	리	가	부	산	에	간	다		
	210	201	204	182	230	230	141	127		
나라가 서울에 간다	나	리	가	서	울	에	간	다		
	206	193	222	346	230	212	149	106		
나라가 점심을 먹었다	나	리	가	점	심	을	먹	었	다	
	209	205	222	196	246	209	167	161	131	
영희가 대구에 간다	영	희	가	대	구	에	간	다		
	227	214	219	241	210	179	149	124		
사마귀가 돋았다	사	마	귀	가	돋	았	다			
	200	216	252	209	152	147	130			
까마귀가 울었다	까	마	귀	가	울	었	다			
	171	201	251	201	166	157	129			
여드레가 되었다	여	드	레	가	되	었	다			
	183	256	218	161	152	143	126			
무지개가 생겼다	무	지	개	가	되	었	다			
	253	225	183	160	161	162	131			
새가 운다	새	가	운	다						
	261	207	154	130						
누나는 나를 몰라요	누	나	는	나	를	몰	라	요		
	270	248	187	232	202	164	201	160		
마늘이 너무 매워요	마	늘	이	너	무	매	워	요		
	174	257	254	175	190	212	264	156		
아이가 엄마와 놀아요	아	이	가	엄	마	와	놀	아	요	
	187	238	203	235	203	154	158	156	142	
눈이 많이 내려요	눈	이	많	이	내	려	요			
	276	231	216	195	166	161	142			
누나는 나를 모릅니까?	누	나	는	나	를	모	릅	니	까	
	285	247	197	251	225	176	259	268	184	
마늘이 너무 맵습니까?	마	늘	이	너	무	맵	습	니	까	
	172	247	239	194	219	203	285	235	181	
아이가 엄마와 놀니까?	아	이	가	엄	마	와	놀	니	까	
	174	246	215	262	232	192	181	175	164	
눈이 많이 옵니까?	눈	이	많	이	옵	니	까			
	277	229	249	235	176	166	169			

<부록 2> 각 음절 별 주파수(경상남도 거주 성인)

문장	주파수(Hz)								
안개가 낀다	안	개	가	낀	다				
	137	177	156	146	111				
바람이 분다	바	람	이	분	다				
	134	167	149	120	126				
하늘이 맑다	하	늘	이	맑	다				
	178	163	135	167	114				
구름이 떠 간다	구	름	이	떠	간	다			
	173	180	154	155	142	124			
나라가 부산에 간다	나	리	가	부	산	에	간	다	
	163	163	142	128	164	142	121	113	
나라가 서울에 간다	나	리	가	서	울	에	간	다	
	175	168	143	133	162	143	122	112	
나라가 점심을 먹었다	나	리	가	점	심	을	먹	었	다
	167	160	142	126	171	153	153	133	102
영희가 대구에 간다	영	희	가	대	구	에	간	다	
	180	167	140	172	158	137	119	110	
사마귀가 돌았다	사	마	귀	가	돌	았	다		
	131	173	162	138	161	134	101		
까마귀가 울었다	까	마	귀	가	울	었	다		
	145	165	162	141	161	148	106		
여드레가 되었다	여	드	레	가	되	었	다		
	131	164	170	155	141	122	100		
무지개가 생겼다	무	지	개	가	생	겼	다		
	170	189	168	146	167	138	102		
새가 운다	새	가	운	다					
	130	161	122	124					
누나는 나를 몰라요	누	나	는	나	를	몰	라	요	
	181	168	138	116	145	113	133	118	
마들이 너무 매워요	마	늘	이	너	무	매	워	요	
	178	175	142	134	160	176	160	122	
아이가 엄마와 놀아요	아	이	가	엄	마	와	놀	아	요
	188	173	151	183	174	150	135	123	107
눈이 많이 내려요	눈	이	많	이	내	려	요		
	133	181	136	154	183	141	104		
누나는 나를 모르나?	누	나	는	나	를	모	르	나	
	200	191	146	130	167	150	186	169	
마들이 너무 맵나?	마	늘	이	너	무	맵	나		
	184	183	159	145	162	200	177		
아이가 엄마와 노나?	아	이	가	엄	마	와	노	나	
	198	185	166	197	199	182	143	212	
눈이 많이 내리나?	눈	이	많	이	내	리	나		
	139	190	135	168	235	203	167		

Intonation Characteristics of Sentence Reading by North Korean Defectors

Mi-Young Choi* · Hwa-Soo Kim**

Abstract This research goal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nation through their sentence reading, and compare language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adults and South Korean adults focused on the intonation of words and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the sentenc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ovide basic knowledg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intonation for future use.

The subjects of study were 2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40-50s who live in Busan, and 2 SK adults who live in the same area and are in the same age group.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from Hamkyungbukdo, and used a dialect of Hankyungbukdo. After they moved to South Korea, they received adoption training at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Hanawon)', and have lived in Busan ever since. The SK adults were from Busan, and have lived in Busan for more than 30 years, and have used the typical Gyungsangnamdo dialect. To compare the inton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is researcher collected recordings from sentence reading. Reading materials consisted of 21 sentences in total, 13 sentences to show the intonation of words, and 8 sentences to show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the sentence. Voice recordings were made in a noise regulated room, in comfortable sitting position, using Praat(version 5.1.23) (44,100Hz, mono). All subjects made a reading of 21 sentences in order, repeated twice. The most natural speech sample was chosen to analy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regarding the intonation of words, North Korean defector group adults generally made a situation melody up and down

* Gimhae Child Development Center, Speech & Language Pathology, verdimy@hanmail.net

** Daegu University, Speech & Language Pathology, Whasoolang@hanmail.net(corresponding author)

in word units similar to SK adults, but their range of frequencies was broader. Regarding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sentences, in the case of declarative sentence, the North Korean defector group adults finished the sentence in a down drift, the same as the South Korean adults, but, in the down drift, the North Korean group made a more gradual decrease. However, in sentences with a more pronounced situation melody their down drift at the end also decreased more dramatically. In interrogative sentences, both the North Korean defector group and the SK group finished the sentences in a down drift. The Gyeongnam dialect and Hamgyungbukdo dialect share this same characteristic that is in contrast to Standard Korean.

Keywords_North Korean Defectors, Intonation, Sentence Reading, Frequency